

## 1. 현지시장 포커스

### 가. 유럽 기능성 식품 시장

- 레더헤드 식품 세계 보고서 (Leatherhead Food International report)에 따르면 유제품, 베이커리, 음료 제품이 에너지 향상, 기분전환, 장 또는 심장의 건강 증진 등을 내세우며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의 7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자료를 보면, 세계적으로 유제품이 약 미화 87억 달러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을 제외한 베이커리가 52억 달러 상당, 에너지 및 기분전환 음료를 제외한 음료가 28억 달러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함
-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이 연구기관은 미국과 유럽이 이 기능성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2009년 기능성 식품 시장규모 23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270억 달러 규모로 약 18.3%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함
- 그러나 기능성 식품의 미래는 몇 가지 주요 포인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유럽과 기타 지역에서 기능성 제품의 건강적인 측면 과 대광고에 대한 규제로, 강력한 과학적인 검증이 뒷받침 될 때에만 건강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게 됨
- 소비자들 또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보다 선호하고 있어 제품에 대한 신뢰 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 5개 유럽 시장은 2009년 51억 달러에서 2015년 65억 달러로 약 27.6%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봄
- 이 중 영국은 최근 프랑스를 따라잡으며 유럽 최대 기능성 시장으로 떠오름. 이는 기능성 유제품과 아침 씨리얼과 음료 제품의 성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 영국에 이어 프랑스가 2위,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차례로 3-5위를 차지함
- 이 연구기관은 액티브 건강 음료는 기능성 요거트와 우유로 유럽 시장을 장악하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유제품이 이 유럽 5개국 기능성 식품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힘
- 인기 있는 브랜드로는 다농 (Danone)사의 액티비아 (Activia)와 액티멜 (Actimel), 베네콜 (Benecol)사의 스프레드와 유제품, 트로피카나 주스 등이 있음



(자료: www.foodanddrinkeurope.com )

### 나. 스페인, 베이비 채소 선호 추세

- 최근 스페인에서는 어리거나 작은 베이비 과일 및 채소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최상급 레스토랑의 유명 주방장들이 이들을 선호하면서 점차 일반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됨
- 스페인의 슈퍼마켓뿐 아니라 많은 특화 식품점 및 대형 슈퍼마켓들이 신선 과일, 채소 섹션에서 베이비 과일 및 채소의 섬세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부각시킴
- 이와 같은 최근 추세는 스페인 소비자들이 최상급 레스토랑의 주방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례임
-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베이비 채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체리 토마토 또는 방울 토마토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미니 채소들을 판매 중임
- 이미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작은 토마토를 제외하더라도 스페인 마켓은 다양한 종류의 미니 채소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오이, 파프리카, 당근, 가지 (eggplant), 서양 호박의 일종인 쥬키니 (zucchini), 십자화 (Brassicaceae)과 채소들인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로마네스코(Romanesco)임. Ubifrance에 따르면 미니 채소들의 인기는 이미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베이비 그린 샐러드와 같은 사전 준비 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니 과일의 종류는 채소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수박, 파인애플, 바나나 정도



(자료: www.fruitnet.com)

## 2. 시장동향

### 가. EU 농식품 소매업 거래량 현황

- 2010년 7월 EU 27개국의 소매 거래량은 전월과 대비하여 0.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전년과 비교하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품목별로 보면 식품, 음료, 그리고 담배 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하여 0.1%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로는 0.5% 증가, 아직 전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비식품 품목은 전월과 전년 모두 식품 품목 성장률보다 큰 각각 0.2%, 2.5%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소매업 유통량의 국가별 전월대비 성장률을 살펴보면, 포르투갈이 3.0%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몰타(2.9%)와 프랑스(2.2%) 등 11개 국가가 거래량 증가
- 반면, 루마니아가 가장 큰 폭인 전월 대비 10.5% 감소를 보였고 스페인 (-3.0%)과 리투아니아 (-1.4%)를 포함한 총 10개 국가가 거래량 감소를 보임
- 또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가 6.1%로 가장 많이 소매업 유통량이 증가하였고 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폴란드와 스위스를 포함한 13개국에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통계치를 제공한 21개국 중 8개국은 유통량이 전해에 비해 감소
- 특히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는 각각 8.0%, 8.8%씩 전년과 대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함

#### <2010년 7월 EU 농식품 소매업 유통 현황>

품목 및 국가	전월대비 (%)	전년대비 (%)
전 체	0.1	1.0
식품/음료/담배	0.1	0.5
비 식품	0.2	2.5
벨기에	1.4	0.8
불가리아	-0.2	-4.8
덴마크	-0.2	-2.7
독 일	-0.3	0.8
에스토니아	1.2	2.5
스페인	-3.0	-4.2
프랑스	2.2	6.1

라트비아	-0.5	-2.0
리투아니아	-1.4	-8.8
몰 타	2.9	0.9
오스트리아	1.7	3.7
폴란드	-0.3	5.2
포르투갈	3.0	-0.3
루마니아	-10.5	-8.0
슬로베니아	-0.7	2.9
슬로바키아	-0.9	-1.6
핀란드	1.2	4.5
스웨덴	0.7	1.5
영 국	1.1	1.0
노르웨이	1.4	1.1
스위스	0.7	5.0

( 자

료: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3.5al/page/portal/eurostat/home>)

## 나. 국가별 동향

### 1) 네덜란드

#### 수출입 동향

- 토마토: 네덜란드가 2010년 상반기 중 337백만 킬로그램의 토마토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동안 수출량보다 17% 증가한 수치임. 독일과 폴란드로의 수출량은 각각 15%, 80% 증가한 반면 대 이탈리아 수출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사 과: 네덜란드는 2009년에 전년보다 5% 감소한 434백만 킬로그램의 사과를 수출함. 이와 같은 사과 수출 감소 추세는 2010년 상반기에도 이어져 전년 동기간보다 5% 감소한 233백만 킬로그램의 사과가 수출됨. 네덜란드에서 수출된 사과 중 40%가 독일로 수출되었으며 이 외에도 벨기에,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주요 수출국으로 나타남. 반면, 2010년 상반기 동안 전년에 비교하여 22% 감소한 184백만 킬로그램의 사과가 수입됨. 그러나 수입된 사과 중 상당량은 네덜란드에서 유통되지 않고 다른 유럽 내륙에 위치한 국가들로 다시 수출된 것으로 파악됨

## 2) 벨기에

### □ 생산 및 가격 동향

- 사과: 벨기에에는 2010-2011년 사과 생산량이 27% 감소한 251,057톤으로 지난 10년간 두번째로 낮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09년에는 예상치가 344,000톤에 이르렀으나 생산량이 모든 품종에 걸쳐 감소했으며 특히 조나골드 (Jonagold)와 뮤턴트 (Mutant), 조나고어드 (Jonagored), 골든 (Golden), 그리고 엘스타 (Elstar)가 많이 감소함. 그러나 사과 재배 면적은 2.8% 증가한 7,752 헥타르로 나타남
- 배: 벨기에의 배 경작도 26% 감소한 227,993톤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어 매출액도 지난 3년 평균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벨기에에는 배 크기 5-10mm가량 작고 올해 수확기는 5-7일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배 재배지 면적도 0.5% 감소한 8,167 헥타르로 조사됨

## 3) 스페인

### □ 생산 및 가격 동향

- 감귤류: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의 감귤류 수확량이 따뜻한 기후 덕분에 작년에 비해 3백만 톤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러나 오렌지와 귤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포도: 스페인 발렌시아 (Valencia) 지역의 포도 생산자 협회인 Ava Asaja에 따르면 올해 발렌시아의 포도 생산량은 20% 감소한 50백만 킬로그램, 우티엘 레귀나 (Utiel-Requena) 지역은 40% 감소한 160백만 킬로그램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포도의 품질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고품질 소생산에 따라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수출 동향

- 유엔의 식품 및 농산물 관련 산하기관(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이 세계 시장 점유율 9%로 세계 최대 신선 과일 및 채소 수출국을 차지함. 스페인은 전세계적으로 신선 과일 및 채소를 수출했으며 수출 물량은 9.1백만 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또한 스페인이 가장 많이 수출한 채소는 토마토로, 880,630톤을 수출함

#### 4) 영 국

##### □ 시장 동향

- 견과류: 영국의 견과류 시장이 소비자들의 건강식 선호하는 추세와 홈베이킹 선호 추세 덕분에 547백만 파운드 규모로 성장했다고 세계 시장 조사 기관인 민텔이 밝힘. 향후 견과류가 사탕과 초코렛의 대체품으로 떠오를 수 있어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함

##### □ 생산 및 가격 동향

- 사 과: 영국 사과 재배자 연합은 작년 겨울이 길고 추워서 과수목이 오랜 기간 동안 휴면할 수 있었고 올해 봄이 평년에 비해 따뜻하고 여름이 빨리 찾아와 올해는 사과 수확량은 감소했지만 당도 높은 사과를 수확하게 됐다고 밝힘

#### 5) 폴란드

##### □ 생산 및 가격 동향

- 양 파: 비가 잦아 양파 수확이 불가능해지면서 양파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일단 양파 수확이 시작되면 가격이 하락할 여지는 있으나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가격 하락폭은 작거나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9월 현재 양파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0.20-0.28 유로, 폴란드 산의 경우는 더 높은 0.30유로에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자 두: 잦은 비에도 불구하고 자두의 판매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도매시장에서 자두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0.25-0.50 유로에 거래되고 있으며 크고 당도 높은 고품질의 자두의 경우는 킬로그램당 0.75유로이 판매되고 있음. 식품 가공 용도의 자두의 경우는 킬로그램당 0.15유로에 거래되고 있음

#### 6) 프랑스

##### □ 생산 및 가격 동향

- 사 과: 프랑스 국립 배 & 사과 협회 (Association Nationale Pommes Poires)는 2010년 사과 수확량이 1.58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올해 사과 종류별 예상 수확량을 보면, 골든 580,000 톤, 갈라 248,000 톤, 그래니 스미스 176,000 톤, 브래번 94,000 톤, 그리고 핑크 레이디 88,000 톤임. 2010년 사과 수확은 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예년보다 8일 가량 늦은 8월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10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3. 수출입 동향

#### 가. EU(27개국)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

##### □ 수출

- 2010년 1 - 6월 EU 27개국의 전체 산업 수출 규모는 6,304억 유로, 식품 및 음료의 수출은 346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체 산업 수출의 약 5.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적 수출 규모는 2009년에 비해 21% 증가하였고 이 중 식품 및 음료의 수출은 16%의 성장률을 보임
- 식품 및 음료의 수출 규모 성장률 16%는 식품 및 음료와 함께 필수 제품군에 속하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출 성장률 40%, 32%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0년 1-6월 유럽 식음료 수출 현황>

품 목	2009년 1-6월	2010년 1-6월	증가률 (%)
	금 액 (십억유로)	금 액 (십억유로)	
전 체	523.1	630.4	21
식품 및 음료	29.7	34.6	16

(자료: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 □ 수입

- 2010년 1 - 6월 EU 27개국의 전체 산업 수입 규모는 7,033억 유로, 식품 및 음료의 수입은 384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체 산업 수입의 약 5.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적 수입 규모는 2009년에 비해 19% 증가하였고 이 중 식품 및 음료의 수입은 2%의 성장률을 보임
- 식품 및 음료의 수입 규모 성장률 2%는 식품 및 음료와 함께 필수 제품군에 속하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입 성장률 43%, 28%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0년 1-6월 유럽 식음료 수입 현황>

품 목	2009년 1-6월	2010년 1-6월	증가률 (%)
	금 액 (십억유로)	금 액 (십억유로)	
전 체	590.2	703.3	19.0
식품 및 음료	37.5	38.4	2.0

(자료: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 무역수지

- 2010년 1 - 6월, 식품 및 음료 제품의 무역은 346억 유로 규모의 수출에 384억 유로 규모의 수입으로 38억 유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함
- 이는 78억 유로 적자를 기록한 2009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식품 및 음료와 함께 필수 제품군에 속하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무역수지는 전년에 비해 무역수지가 1402억 유로, 140억 유로 규모로 더욱 악화됨

나. 한국 농산물 수입 동향

□ 유럽 전체적 수입동향

- 2010년 1-7월의 유럽지역 전체의 한국 농산물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21.19% 증가한 약 9,416만kg, 수입금액은 25.43% 증가한 미화 18,200만 달러를 기록함
- 수입물량 증가를 대비 수입금액 증가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실제 물량 대비 금액으로 분석하면 2009년 1-7월에는 킬로그램당 미화 1.86 달러였으며 올해에는 0.007달러 높은 킬로그램당 미화 1.93달러 이상임

< 2010년 1-7월 유럽의 한국 농산물 수입동향 >

2009년 1-7월		2010년 1-7월		증가률 (%)	
물량 (kg)	금액 (USD)	물량 (kg)	금액 (USD)	물량	금액
77,699,499.9	145,109,752	94,166,825.1	182,007,996	21.19	25.43

(자료: 농수산물 무역정보 Kati)

□ 국가별 수입동향

- 2010년 1-7월 EU 국가별 수입규모는 네덜란드가 미화 50,780,227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었고, 다음으로 스페인 (37,391,592 달러), 이탈리아 (21,757,513 달러), 영국 (16,416,330 달러), 독일 (14,881,107 달러) 순으로 나타남
- 네덜란드의 경우, 전년에 비해 수입물량 0.71% 감소하였으나 수입금액은 오히려 36.9% 증가하여 킬로그램당 수입금액이 크게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 수입물량이 가장 크게 성장한 국가는 프랑스와 덴마크로 각각 258.15%, 128.92% 증가률을 보였으며 수입물량 상위 10개국 중 네덜란드 (-0.71%)와 폴란드 (-17.13%)를 제외한 8개국에서 한국 제품의 수입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금액 상위 10개국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156.17%의 증가률을 기록하였고, 이는 혼합조제식료품목 중 하나인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수입이 245.84%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됨
- 헝가리와 더불어 네덜란드 (36.9%), 독일 (60.15%), 영국 (47.81%), 이탈리아 (47.16%)가 전년에 비해 30% 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또한 물량 증가률과 금액 증가률을 비교했을 때, 수입규모 상위 10개국 중 6개 국가들이 물량 증가률에 비해 금액 증가률이 커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킬로그램당 수입금액이 가장 큰 국가는 덴마크로 킬로그램당 미화 7.47달러였으며 이탈리아 (2.66 달러)와 영국 (2.96 달러)이 킬로그램당 미화 2.5달러를 넘겼음
- 덴마크는 채소종자 품목의 킬로그램당 수입금액이 96.13달러, 배양효모가 킬로그램당 2000달러, 인삼류 138.62달러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는 7달러대를 유지함

<2010년 1-7월 한국 농림수산물 국가별 수입 현황>

국 가	2009년 1-7월		2010년 1-7월		증가률	
	물량 (kg)	금액 (USD)	물량 (kg)	금액 (USD)	물량	금액
네덜란드	27,496,935.2	37,092,229	27,301,060.3	50,780,227	-0.71	36.9
스페인	15,545,746.9	28,963,904	20,451,294.2	37,391,592	31.56	29.1
이탈리아	7,023,906.2	14,784,496	8,179,601.1	21,757,513	16.45	47.16
영 국	4,703,558.5	11,106,435	5,549,884.9	16,416,330	17.99	47.81
독 일	5,046,591.8	9,291,982	8,613,578.4	14,881,107	70.68	60.15
프랑스	2,850,119.1	13,437,490	10,207,843	11,645,138	258.15	-13.34
벨기에	3,232,530.4	6,985,082	3,276,690.5	7,975,192	1.37	14.17
헝가리	1,104,198	1,429,337	1,955,002.7	3,661,470	77.05	156.17
폴란드	1,950,527.1	2,674,481	1,616,340	3,068,088	-17.13	14.72
덴마크	155,875.3	2,138,554	356,822.3	2,667,013	128.92	24.71

(자료: 농수산물 무역정보 Kati)

□ 부류별 수입동향

- 2010년 1-7월 유럽지역의 한국 농축수산물 수입규모는 2009년 1-7월과 비교해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21.19%, 25.43% 증가한 94.2백만kg, 총 182백만 달러를 기록함
- 농산물을 비롯한 임산물과 수산물의 수입금액은 작년에 비해 20% 전후의 비교적 높은 증가률을 보였으나 축산물은 8.93% 감소함
- 또한 수입물량에서도 농산물을 비롯한 임산물과 수산물의 수입물량은 가장 적게는 17%, 가장 많게는 59.87%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은 23.95%로 크게 감소함
- 그러나 축산물의 킬로그램 당 수입금액은 미화 6.03달러를 기록하였고, 킬로그램 당 1.68달러를 기록한 농산물과 1.55달러인 임산물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됨

<2010년 1-7월 한국 농림수산물 수입 현황>

품 목	2009년 1-7월		2010년 1-7월		증가률 (%)	
	물량 (kg)	금액 (USD)	물량 (kg)	금액 (USD)	물량	금액
합 계	77,699,499.9	145,109,752	94,166,825.1	182,007,996	21.19	25.43
농산물	55,760,245.1	85,055,575	65,759,046.5	110,449,560	17.93	29.86
축산물	314,296.2	1,583,077	239,023	1,441,737	-23.95	-8.93
임산물	1,241,716.9	2,436,174	1,985,165.3	3,068,055	59.87	25.94
수산물	20,383,241.7	56,034,926	26,183,590.3	67,048,644	28.46	19.66

(자료: 농수산물 무역정보 Kati)

□ 품목별 수입동향

- 품목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리신,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핵산과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기타조제농산물이 전년대비 물량 8.39%, 금액 40.22% 증가한 미화 71,714,543달러 규모로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됨
- 기타조제농산물에 이어 미화 9,688,973 달러 수입규모를 기록한 면류, 5,468,025 달러의 채소류가 각각 2, 3위를 차지함
- 그러나 가격변동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채소류의 경우 수입물량이 17.94% 감소하면 금액도 1.18% 감소함
- 반면, 수입금액 성장률이 가장 컸던 품목은 기타산식물로 643.34%가 성장하였으며 연초류가 428.51%, 사료가 246.62%로 세 자리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또한 킬로그램 당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인삼류가 70.08달러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물성 유지 26.10달러로 나타났으며 효모류 (12.05달러)를 비롯한 식물성 액즙 (10.57달러), 커피 (8.07달러), 연초류 (7.69달러), 당류 (6.64달러), 화훼류 (5.40달러)가 킬로그램 당 5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1-7월 한국 농림수산물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품 목	2009년 1-7월		2010년 1-7월		증가률	
	물량 (kg)	금액 (USD)	물량 (kg)	금액 (USD)	물량	금액
곡 류	242,557	499,463	324,599.9	576,603	33.82	15.44
과실류	266,605.3	337,749	883,137.9	755,165	231.25	123.59
채소류	5,970,060.8	5,533,112	4,898,997.7	5,468,025	-17.94	-1.18
화훼류	250,864.7	1,653,773	255,116	1,378,145	1.69	-16.67
버섯류	437,764.4	1,892,246	392,648	1,612,505	-10.31	-14.78
기타산식물	66,100	70,109	330,740	513,358	400.36	632.23
식물성유지	3,295.9	40,124	10,235.5	267,184	210.55	565.9
식물성액즙	285,844.2	2,829,103	278,227.9	2,940,274	-2.66	3.93
사 료	32,200	58,897	5,832,390.8	204,147	18,013.01	246.62
빵류제조용	88,613.5	241,129	125,890.5	389,882	42.07	61.69
효모류	6,689.2	209,296	19,844.5	239,214	196.66	14.29
소스류	577,352.7	1,066,120	828,378.6	1,491,127	43.48	39.86
커피류	124,027.1	923,262	118,934.4	983,748	-4.11	6.55
연초류	2,531.5	59,686	41,041.3	315,449	1,521.22	428.51
인삼류	26,750.3	1,530,313	21,844.1	1,530,853	-18.34	0.04
주 류	312,496.1	488,653	403,338.4	874,181	29.07	78.9
당 류	316,034	2,201,155	552,653.3	3,668,154	74.87	66.65
음료류	1,798,423.7	1,438,513	1,730,679.7	1,284,196	-3.77	-10.73
과자류	430,737.7	1,544,871	542,789.2	1,689,608	26.01	9.37
면 류	3,590,920.8	8,705,826	4,008,060.2	9,688,973	11.62	11.29
기타조제 농산물	38,866,099.7	51,145,490	42,126,455.9	71,714,543	8.39	40.22
식물성섬유	1,655,571.6	1,431,075	1,882,435.7	2,469,446	13.7	72.56

(자료: 농수산물 무역정보 Kati)

#### 4. EU 경제 동향

- 2010년 2/4분기 중 16개 유로(Euro) 사용국가의 GDP는 전 분기 대비, 1.0%, 전년도 2/4분기와 비교하여 1.7% 성장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그러나 이와 같은 EU지역의 GDP 증가는 독일이 2.2%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며 소수의 전문가만이 GDP의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그러나 8월의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 지수(Consumer Confidence Indicator)는 7월 -14에서 -12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 신뢰 지수를 지속적인 경제회복의 신호로 간주하고 있음
- 8월, 인플레이션 증가률은 1.6%로 2008년 11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보다 낮아짐

#### < 주요 경제지표 >

이자율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증가률	실업률	경상계정	환율
1%	1.0%	1.60%	10.0%	-25	1.3280

(자료: TradingEconomics)